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아버지 노릇 하기의 어려움

장 석 주
시인

어려서 외할머니 아래서 외삼촌들과 함께 자랐다. 오랫동안 부모의 얼굴을 떠올리지 못했다. 기억에 없었기 때문이다. 젊은 부부는 고향을 떠나 낯선 고장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경기도 북부의 운천이라는 소도시에 있다고 했다. 나는 그 운천이 어딘지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목수였는데 미군 부대에서 용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자식을 떼어 놓고 낯선 고장에서 삶을 개척하는 젊은 가장의 수고와 고단함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는 열 살이 될 때까지 부모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자랐다. 영유아기 때 아버지와의 접촉 기억은 없다. 너무 어린 시절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를 떠올리면 엷은 슬픔과 고통을 느낀다. 어쨌든 아버지의 자애를 경험하지 못한 채 성장한 것은 내 불운이다. 아마도 아버지의 사랑과 따뜻한 훈육을 충분히 받고 자랐다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오랫동안 '아버지 노릇하기란 무엇인가'라는 화두에 사로잡혔던 데는 그런 곡절이 있었다. 아버지에게 자식은 자신에게서 쪼개져 나온 또 다른 자기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자신의 유전 형질을 물려주며 거기에 아들은 후천적으로 아버지를 닮고자 노력한다. 육아에서 배제된 아버지가 자식의 성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알려져 왔지만 최근에는 아버지는 자식의 지능, 사회성, 언어 능력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추세다.

인간 사회에서 아버지가 제 자식에게 애정을 쏟고 돌보는 현상은 그리 낯설지 않다. 하지만 포유류 전체에서 보면 포유류 수컷 중에서 제 자식을 돌보는 것은 불과 5% 정도라고 한다. 포유류에게 아버지의 돌봄 현상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아버지의 자식 돌봄은 자식의 사회경제적 성공을 위한 일종의 투자다. 아버지의 부재는 분명 자식의 신체나 인지 측면에서의 발달과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버지와 떨어져 산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의 돌봄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모든 남성이 어른이 되어서 다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임신 가능한 이성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상대가 수태를 하고 출산을 하면서 아버지가 된다. 물론 사회적 입양을 통해 아버지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자식 돌봄의 의무를 기꺼이 지는 일이고, 자식의 사회성과 도덕성에 방향과 지침을 주는 존재로 살겠다는 약속이다. 아버지는 자식이 따라야 할 깃대, 이상적인 모델, 자기만의 영웅이다.

전통사회에서 아버지 노릇의 가장 큰 부분은 가족을 위한 '식량 조달'이다.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기초 생계를 해결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헐벗지 않게 하며, 지붕 아래에서 잠을 재우는 일이야말로 아버지 노릇의 고갱이다. 더 나아가 좋은 아버지라면 자식과 감정적 소통, 깊은 유대 관계를 쌓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자식의 생존과 번식 활동에 기여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식에게 평생을 사랑하고, 마시고, 미소 짓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아버지는 40대라는 이른 나이에 일손을 놓고 물러나 허송세월했다. 대부분의 날을 직업 없이 빈둥거리며 지내는 동안 아버지는 스스로를 놓아 버린 듯 무기력했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그다지 매끄럽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부정적 표상이었다.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사춘기 너머 나는 늘 반항하는 아들이고, 아버지는 내심 그런 아들을 거두는 일을 버거워 했을 것 같다. 나와 아버지는 데면데면했고, 나는 또 나대로 방황을 하고 혹독한 성장통을 겪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야 문득 깨닫는 게 있다. 아버지를 이해하는 일도 그중의 하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스무 해가 지났다. 아, 아버지! 엷은 슬픔 속에서 탄식하듯이 아버지를 불러 보고 싶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아버지 노릇하기란 얼마나 고단한 일일까!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해방과 전쟁을 겪으며 혈혈단신으로 제 생의 길을 뚫어야 했을 젊은 아버지의 대한 연민은 너무 늦은 것이었다.

종교칼럼

운명의 무게

중 현
광주 증심사 주지

댓돌엔 항상 털신과 운동화가 사이좋게 나란히 놓여 있다. 나의 왼발은 처음엔 털신을 신으려 하였으나, 찰나의 순간 운동화를 신어야겠다고 생각을 바꿔 먹었다. 닿을 듯 말 듯, 털신을 향해 가던 왼발은 그대로 운동화를 향하여 수평 이동하였다.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이었다. 운동화를 향해 예정에 없던 수평 이동을 한 왼발은 운동화가 털신보다 목이 더 높다는 사실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고, 불행하게도 운동화의 목에 덜컥 걸리고 말았다. 그 순간 휘청하더니 나무가 쓰러지듯 몸이 왼쪽으로 넘어갔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던 그 순간을 나는 매우 생생하고 온전하게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영겁의 시간이 흐르는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대략 40센티 이상 되는 댓돌 위에서 떨어지는 중이었던 것이다. 엄청나게 큰 소리가 쿵하고 났다. 나의 엉덩이가 그대로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댓돌 추락 사건이 있은 뒤로 털신과 운동화는 항상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있다. 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든 셈이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내 몸에서 사고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길어 봐야 몇 초 남짓한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의 갈등과 우유부단함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몸에 새긴 고통의 시간은 일주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물리적인 몇 초라는 짧은 시간과 몸에 새겨진 길고도 긴 고통의 시간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크다. 내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의아할 뿐이지만, 신기하게도 엄연한 현실이다. 눈곱만큼도 의도하지 않았음은 물론, 매우 사소하며 지극히 우연적이었던 순간이 이렇게 삶에 큰 생채기를 남긴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되질 않는다. 그 순간의 깃털 같은 물리적인 비중에 어울리지 않게 삶에 드리운 무게는 실로 엄청났기 때문이다.

지난 40년간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방금 전 일처럼 불쑥 떠올랐다. 의대 신입생이었던 나는 1학기를 마치고 유급되는 초유의 사태를 당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유급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나는, 나를 버린 첫사랑을 지독하게 원망하기 시작했다. 나의 유급을 인정하는 대신,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돌린 것이다. 생각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결국 그녀를 만난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그날, 그 일요일 아침, 친구의 전화만 받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친구 대신 나간 소개팅 자리였다. 결국 유급이라는 엄청난 대사건은 지극히 사소했던 친구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왜 하필 그때 전화가 왔을까? 왜 그 전화를 받았을까? 이런 것이 운명일까? 그래! 이건 운명이야. 내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했다. 당시 나에게 인생이란 이미 정해진 궤도를 달리는 열차와도 같았다. 그 뒤로 한동안 나는 지독한 운명론자로 살았다. 비겁한 도피였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커다란 시련을 어찌 헤쳐 나갈수 있었을까?

댓돌 추락 사건도 어찌 보면 운명처럼 내게 다가왔다. 그렇지 않고서야 의도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사소하며, 매우 우연적인 일이 이토록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리 만무하다. 이것이 바로 운명의 무게가 아닐까?

미래(未來)는 무수히 많은 우연이자, 무한한 가능성으로 펼쳐져 있다. 과거는 이미 결정된 단 하나의 필연이다. 인간은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본 과거를 운명이라 부르기도 한다. 현재는 무수히 많은 우연 중 하나가 필연으로 결정되는 순간, 즉 운명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만약 시간을 시공간이라는 동일한 범주 내의 여러 차원 중 하나로 이해한다면, 이미 무수히 많은 세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세계만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드러날 뿐이다. 운명은 나의 선택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요, 나의 행동이 남긴 잔해이며, 나의 삶에 내가 부여한 명패이다.

40년 전에 나를 숙명론자로 거칠게 몰아붙였던 운명적 대사건도 한낱 댓돌에서 엉덩방아를 찧은 순간보다 못한 기억으로 전락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운명의 무게는 운명적 순간을 선택하는 지금 현재의 무게와 다름없다.

기 고

'고려인 아이들이 온다'

박 용 수
한신대 석좌교수·정치학 박사

요즘 광주 고려인 마을을 보면 놀라움과 경이로움 그 자체다. 지난 3월 처음으로 고려인 4세 최마르크 군(13살)이 광주에 왔을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다. 특별한 사례라 여겼다. 그런데 뜻밖이었다. 고려인 동포들의 귀환 행렬이 줄이었다. 최마르크 군의 첫 입국 후 100일 동안 무려 441명에게 항공권을 지원해 400여 명이 입국했다. 아직도 270여 명이 애타게 항공권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근 국가에 피난 중인 고려인들이 3000여 명으로 추산되니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들다. 역사적 대사건이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들을 작은 고려인 마을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르면, 놀라움은 경이로움으로 바뀐다. 물론 그 바탕은 각계각층의 국민 성금이다. 고려인 마을(대표 신조야)의 고려인 귀환 돕기 모금운동에 7억 1000여만 원이 모아졌다.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성금이다.

고려인 마을을 취재한 한 기자는 '광주 고려인 마을의 기적'이라며, 'IMF 때 금 모으기 국민운동 이상으로 국격을 높이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다. 정부 지원이 아니라, 순수 민간 차원의 모금 결과이니 더욱 자랑스런 일이다. 그러나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국가의 기본 책무인데, 민간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게.

우크라이나 난민 수백만 명을 전폭 수용하는 유럽 국가들을 거론할 필요도 없다. 난민 폐쇄국으로 비판받는 일본조차 전용기로 우크라이나 난민을 데려다 정착을 지원하는 모습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 외교부가 피난 중인 고려인 동포들에게 여행 허가 조건을 완화해 주고, 할일 다한 것처럼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고려인 동포들의 절박한 귀환 요청이 줄을 잇는데도 실태 파악마저 외면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고려인 동포 포용과 지원 제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 난민 문제가 아니라, 동포 문제로 풀면 되는데 꽉 막혀 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실망을 넘어 질타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의 국가적 위기를 어찌 극복할지 걱정이다.

이럴 때, 고려인 아이들이 한줄기 희망의 빛이다. 고려인 아이들 1000여 명이 고려인 마을에서 숨을 쉬고, 꿈꾸며 살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란다. 주변 초등학교들이 고려인 아이들 덕분에 분교 전락 위기에서 벗어났을 정도다. 고려인 마을은 오후가 되면 왁자지껄 시끄럽다. 아이들이 골목과 공원에서 뛰노는 소리다. 예전 우리 동네 모습 그대로다. 고려인 어린이 합창단과 고려인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의 공연 무대는 언제나 관객들의 탄성을 부른다.

정현종 시인은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고 노래했다. 그렇다. 고려인들이 광주에 온 것은 연해주 항일 무장 독립투쟁의 역사와 한 맺힌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온 것이고, 그들의 삶과 문화, 예술이 함께 온 것이다. 동시에 고려인 아이들의 눈부신 미래가 함께 온 것이다. 그들이 장차 광주의 주역, 국가의 주역이 될 테니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광주의 역사는 깊어지고, 문화예술은 풍성해지며, 미래는 한층 밝아졌다'는 말은 허투루 한 게 아니다.

오늘 고려인 마을은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고려인 동포들의 법적 지위 회복과 안정적인 정착, 사회 적응 문제다. 고려인들의 주거 문제, 의료·취업·교육·복지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고려인 마을과 시민사회 역량으론 역부족이다. 대부분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들이니 살길이 막막하다.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한다. 제도적·체계적인 종합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고려인 아이들이 펼쳐 보일 미래를 상상해 보라. 가슴 벅차지 않는가. 고려인은 물론 이주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축복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광주 복합쇼핑몰 공공성·사업성 조화 꾀해야

유통업계 '빅3' 중 하나인 현대백화점 그룹이 광주에 대규모 문화복합몰인 '더현대 광주'를 짓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광주신세계와 롯데 측도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광주의 현안인 복합쇼핑몰 건립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그제 "부동산 개발 기업인 휴먼스홀딩스 제1차 PFV와 함께 광주시 북구 임동 전남방직·일신방직 공장 부지 29만 3000여㎡ 중 일부에 미래형 문화복합몰 '더현대 광주'를 짓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형 문화복합몰'에 대해서는 쇼핑과 여가·휴식·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이 접목되는 새로운 업태로, '더현대 광주'가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상권과 겹치지 않는 럭셔리 브랜드 중심으로 매장을 꾸리고 인근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 소상공인과 상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현지 법인화를 추진해 2만 2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선언으로 광주 복합쇼핑몰 개발 경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7년 전 특급호텔을 포함한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무산된 광주신세계는 탄탄한 자본금과 넓은 보유 부지를 기반으로 강력한 재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롯데도 광주시와 접촉에 나섰다고 한다. 호남에는 복합쇼핑몰이 단 한 곳도 없어 이번 유치전의 승자가 500만 인구의 광주·전남·전북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복합쇼핑몰 유치 당위성으로 역외 소비 유출 방지를 꼽고 있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서 보듯 골목상권 등 중소상인과의 상생 방안 마련이 필수적인 과제다. 광주시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고 공공 기여 등을 통해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해야 한다. 정부도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가 국정 과제인 만큼 도로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폭염 피해 본격화…취약계층 보호책 시급하다

광주·전남 지역에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폭염 특보가 1주일 이상 이어져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광주·담양·나주·화순 등 네 곳에는 폭염 경보가,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광주·전남 지역에 지난달 30일부터 8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4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전남의 경우 폭염 특보가 내려진 지난 30일 이후 21명이나 급증했다.

가축 피해도 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4일까지 도내 13개 농가에서 3326마리의 가축이 폭염으로 폐사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한 그제는 함평만·득량만·가막만·도암만·여자만 등 전남 앞바다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폭염이 에너지 빈곤층과 노인, 저소득 가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전기·가스 요금이 동시에 인상돼 생활고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은 요금 걱정에 선풍기조차 맘대로 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될 경우 자칫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과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해 무더위 쉼터가 폐쇄된 곳이 많은 만큼 방역 수칙을 지키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농촌 어르신들이 장기간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마을 정자나 그늘막 등 야외 폭염 저감 시설도 늘려야 한다. 아울러 개개인들도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국호 개명(改名)

우리나라에서 개명(改名)은 애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능할 정도로 엄격했으나, 2005년 대법원이 개인 성명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가능한 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노숙자'나 '강간범' 같은 이름은 창피할 수밖에 없어 개인의 행복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다.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식민지나 독재시대의 국호를 쓰던 나라들은 사회가 안정화되면 개명을 한다. 특히 몽고와 터키는 국호에 '멍청이'나 '무지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 개명된 사례이다.

최근 터키는 유엔의 승인을 받아 나라 이름을 '튀르키예'(Turkiye)로 바꾸었다. '튀르키예'는 '터키인의 땅'이라는 뜻이다. 이 나라가 표기 변경을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칠면조'와 영어 철자가 같기 때문이다.

터키의 영문 이름은 칠면조를 연상시킨다. 칠면조의 영어 철자는 'turkey'다. 터키 국명과 같다. 이는 과거 조류 수입에 터키 상인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오스만 제국 당시 터키 상인들은 유럽·중동 지역으로 북아프리카산 '기니 파울'(Guinea Fowl)이라는 새를 수출했다. 이 새는 터키로부터 수입된 탓에 '터키닭'으로 불렸다. 이 과정에 기니 파울을 본 사람들은 비슷하게 생긴 칠면조도 '터키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터키'라고 불렸고, 결국 '터키'가 국명이 됐다. 문제는 터키 영어 철자가 '칠면조'와 같다는데 있다. 칠면조는 터키와 별 관련이 없는데다 영어 단어 'turkey'는 '멍청이' '겁쟁이'란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어 터키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

1990년 한국이 몽고와 수교할 당시, 몽고가 한국에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경제원조가 아닌 국호를 몽골로 불러달라는 것이었다. 몽고(蒙古)는 중국이 몽골을 비하할 때 사용하던 것으로, '무지하고 낡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1991년부터 우리 정부는 몽골을 표준어로 사용하고 있다.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인이든 국가이든 신경 쓰이는 일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채희종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8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